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0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광산구청 동호회

‘그린시티’ 광산구 꿈꾸며 전각 100여명 완주 다짐

마라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무공해 운동’이다.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삶을 꿈꾸는 광주시 광산구청의 직원들이 3월1일 새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 속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폴코스 4명 등 두터운 선수층

광산구청의 명예를 걸고 61명의 직원들이 출사표를 던졌던 지난해에 비해 참가인원이 부족 늘어 이번 대회에는 100여명이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무공해 운동’ 마라톤에 관심을 두는 직원들 수가 부족 늘면서 참가인원도 늘었

다. 특히 마라톤 사랑을 외치는 ‘광산구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박기욱·이하 광마동)는 광산구청에 붙고 있는 마라톤 붐의 중심에 서있다.

광마동은 2007년 9월 결성돼 그 역사는 짧지만 다채로운 기록을 보유한 회원들로 유명하다.

전체회원 71명 가운데 4명이 폴코스 완주자로 이름을 올렸고, 하프코스 완주자는 16명, 건강코스 완주자는 49명으로 선수층이 두터운다.

폴코스 완주자 중 강용기(52)씨와 김진오(43·건축팀)씨는 부부가 같이 42.195km를 완주하는 마라톤 가족이고, 폴코스 완주 22회를 기록한 이용희(46·신가도서관)씨도 마라톤 마니아들의 꿈인 서브-3를 일곱

번이나 기록한 광마동 대표 선수다.

무엇보다 특유의 정신력 때문에 광마동은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 강용기씨는 독보적 존

이용희씨 폴코스 22회 기록

재다. 폴코스 완주 기록은 최하위권에 머무르지만 부인과 함께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하는 강 씨는 완주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이름 높다.

마라톤 대회의 경우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주회 측이 기록 측정 매트를 치우고, 중도 포기자들을 버스에 태워 복귀시키지만 강 씨는 끝까지 완주를 고집한다. 그의 완주 고집에 치워졌던 기록 측정 매트가 다시



그린시티를 꿈꾸며 건강한 달리기를 선보이는 광산구청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3·1 마라톤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설치되기도 하는 등 대회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들의 열성적인 활동에 광산구도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청사 7층에 체력 단련장이 마련돼 회원들은 근무시간이 끝나고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매년 일정액의 활동비 지원도 받고 있다.

마라톤 정신으로 공직 수행

광마동 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욱 민원봉사팀장은 “마라톤을 하다보니 인생사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완주의 기쁨을 맛보듯 마라톤

정신으로 공직자의 도리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훈련을 하며 3월1일을 기다리고 있는 광마동 회원들은 다음달 23일 송산유원지에서 출정식을 갖고 2009년 마라톤 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윤석민 목표는 “다승왕”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이 다승왕에 재도전한다.

2008년 녹색 그라운드를 한구야구의 ‘내들보’ 투수 윤석민과 김광현(SK)을 위한 무대였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주역인 두 선수는 시즌내내 다승왕과 평균자책점왕을 놓고 한 치 양보없는 힘의 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무승부. 김광현은 16승 고지에 오르며 윤석민(14승)을 누르고 다승왕을 차지했고, 윤석민은 평균자책점 2.33의 완벽 피칭으로 김광현(2.39)의 투수 3관왕을 저지하며 평균자책점왕에 올랐다.

평균자책점왕 윤석민이 한층 정교해진 투구로 2009시즌 마운드에 오른다. 목표는 다승왕이다.

명품 슬라이더 ‘업그레이드’

15승 자신... 가을잔치 오를것

2008년 윤석민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평균자책점왕, 페어플레이상을 휩쓸며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다. 프로데뷔 4년 만에 느껴본 짜릿한 감동이었다.

2005년 KIA 유니폼을 입은 윤석민은 그동안 승보다 더 많은 패를 기록했다. 데뷔 첫 해 3승4패7세이브라는 성적표를 받았고, 마무리로 활약한 2006년에는 5승6패19세이브를 올렸다.

선발로 자리를 굳힌 2007년에는 3.78의 평균자책점으로 18번이나 패전투수가 되며 ‘불운의 에이스’라 불렸다. 승리는 7번에 불과했다.

하지만 통산 15승의 4년차였던 지난해 ‘명품’ 슬라이더와 시속 150km가 넘는 매서운 직구를 가지고 14승을 채웠다. 새로운 무기 개발도 선보였다.

5번째 시즌을 앞두고 광 전지훈련지에서 공 끝을 가다듬고 있는 윤석민은 손목회전을 높여 공의 회전을 더하고 있다. 타자들을 압도해온 다양한 구질에 공의 움직임까지 더해 빈틈없는 승부를 펼치겠다는 생각이다.

체력과 투구 밸런스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올림픽 이

후 피로가 쌓이며 어깨통증이 생겨 다승 선두 자리를 내준 만큼 완벽한 몸만들기로 다승왕에 재도전하기 위해 서다.

“지난 시즌 중반에 2번 엔트리에 빠진 게 너무 아쉽다. 다승왕 타이틀을 차지할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 더욱 그렇다. 올 시즌 몸을 제대로 만들어 다시 도전하겠다.”

최다패의 호된 경험이 바탕이 된 자신감도 보인다.

“2007년에는 최악의 시즌을, 2008년에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야구는 멘탈게임이라 내 자신만 다스린다면 현재보다 더욱 많이 성장할 것이다.”

매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윤석민은 개인적인 명에 만큼 팀 성적에도 큰 욕심을 부릴 생각이 없다.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오르는 꿈을 위해 더욱 빠른 훈련의 속도를 내고 있다.

2009년 팀의 에이스와 함께 해야할 역할이 또 있다. 바로 국가대표다.

“국가대표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올림픽때 등판은 많이 했지만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실점도 했다. 작년 올림픽과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운이 좋게 타자들이 점수를 잘 뽑아줬지만 이번 WBC에서는 완벽한 투구로 타자들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 올해는 국제무대에서 꼭 내 자신을 알리고 싶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한야구협회 새 회장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한나라당 강승규(마포 갑·사진) 국회의원이 제20대 대한야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야구협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09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 투표 끝에 강 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의원은 후보로 나선 민경훈 현 회장과 비교해 표 대결에서 11-9로 이겼으며 이후 대의원들이 강 의원을 단독 추대하는 형식으로 회장직에 올랐다.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 진출한 강

의원은 천안북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기사를 거쳐 서울시 공보관과 서울시 홍보기획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강 의원은 회장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야구는 어린 시절 꿈이었다. 미력하나마 온 힘을 다해 아마 야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방랑아 김진우 복귀 돕겠다”

경찰청 야구단 유승안 감독 “긍정의 힘으로 조련”

“긍정의 힘으로 김진우를 붙잡고 싶다.” 경찰청 야구단 유승안(사진) 감독이 ‘방랑아’ 김진우의 조련사로 나선 심경을 밝혔다. 유 감독은 얼마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진우를 돕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김진우가 경찰청 야구단 캠프가 차려진 부산 동의대를 찾으면서 유 감독은 ‘방랑아 조련’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김진우는 잦은 이탈로 물의를 빚은 끝에 2007년 결국 소속팀 KIA 타이거즈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북한편 자취를 감춰 KIA 관계자들의 애를 태웠고,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지명수배자가 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복귀 뜻을 피력하

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서 팬들마저 등을 돌렸다.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에서 ‘최대의 문제아’로 전락해버린 김진우가 경찰청 훈련에 합류했다.

유 감독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심정으로 김진우를 받았을었다”면서 “선배로 야구 선수 김진우를 평가하고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야구 선수 아들(한화 유원상)을 둔 아버지로서의 심경도 이번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지 않느냐? 다시 또 뛰쳐나갈 수도 있지만 새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KIA와 팬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는 돌봐주고 싶다.”



결과는 장담 할 수 없지만 울타리 밖에 나가있기에 너무 아까운 선수라는 게 유 감독의 입장이다.

“물론 부정적인 면이 많은 선수지만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겠다. 부정적으론 보면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어리고 자질이 많은 선수다.”

경찰청은 설 연휴 없이 훈련을 이어왔다. 김진우도 입단동기인 신용운 등 선수들과 훈련을 소화했다. 유 감독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계속한다면 3월 정도쯤 정상 피칭이 가능하고, 실전 피칭이 가능한 시점은 5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아 ‘피겨대전’ 아사다

내달 2일 밴쿠버 4대륙 선수권... 시즌 두번째 맞대결

‘19세 동갑내기’ 피겨 라이벌 김연아(군포 수리고)와 아사다 마오(일본)가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김연아와 아사다가 격돌하는 무대는 2월2일부터 8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4대륙 대회는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을 대표하는 남녀 피겨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국가별로 남녀 싱글과 아이스댄싱, 페어 전 종목에 걸쳐 3장씩 출전권을 가진다.

한국은 여자 싱글에 김연아를 포함해 김나영(연수여고)과 김현정(수리고)이 나서고, 남자 싱글에는 김민석(불암고)이 출전한다.

이에 맞서는 일본은 아사다를 필두로 ‘백전노장’ 수구리 후미에와 지난해 그랑프리 6차 대회였던 NHK 트로피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냈던 스즈키 아키코가 복병으로 출격한다. 또 미국에서는 알리샤 시즈니를 필두로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 경력을 자랑하는 ‘젊은 피’ 레이철 플랫과 캐롤라인 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캐나다에서는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조애니 로세트가 나선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대회가 치러질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열리는 터라 김연아로선 일찌감치 올림픽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연합뉴스